

이기는 삶

자신감을 기르는 원칙



요트는 돛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에 따라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한다. 과거 돛대배로 바다를 항해하던 시절 강한 바람이 불면 대부분의 선장은 배가 전복될 것을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파도에 밀리며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기를 기다리지만 노련한 선장은 거친 파도와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평소보다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하게 한다.

이는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얻은 자기 암시와 확신의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떤 자기 암시를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갈 수도 있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 현대 성공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황금률'에 제시된 다음의 글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첫째, 내에게 뚜렷한 인생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둘째, 내 소망을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잘 알고, 매일 30분씩 성공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라.

셋째, 어떤 소망이든 끈기 있게 간직한다면 언젠가는 적절한 성취 방법이 생김을 잘 알고, 매일 10분씩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라.

넷째, 목표를 종이 위에 적어둔다면 내가 나아가갈 길이 더욱 뚜렷이 보인다는 사

자고 있다가 적절한 자극만 부여된다면 놀라운 수준의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씨앗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길러보도록 하자.

첫째, 나에게 뚜렷한 인생 목표와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음을 알고,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둘째, 내 소망을 행동에 옮길 때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될 것임을 잘 알고, 매일 30분씩 성공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라.

셋째, 어떤 소망이든 끈기 있게 간직한다면 언젠가는 적절한 성취 방법이 생김을 잘 알고, 매일 10분씩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가져라.

넷째, 목표를 종이 위에 적어둔다면 내가 나아가갈 길이 더욱 뚜렷이 보인다는 사

실을 잘 알고, 목표 달성의 충분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노력하라.

다섯째, 신뢰와 정의에 바탕을 두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행동은 하지 않으며, 내 힘과 타인의 협력을 조화하여 성공을 달성하라. 이를 위해선 우선 남을 도울 것이며 그들도 나를 돕도록 이끌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정적 요소인 미움이나 질투, 이기심, 비판적 태도를 버리고 주변 사람 모두에 대한 사랑을 키우도록 노력하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들도 나에게 대한 신뢰를 보여줄 것이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Your everlasting life makes all things immortal! 여러분의 영생은 만물의 영생을 이끌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화를 내고 욕심을 부릴 때 여러분 자신의 피가 썩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만물도 함께 썩어 갑니다.

▶ When your heart is angry and greedy, not only does your own blood rot, but everything around you also rots.

반면에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고 선하게 바뀔 때 여러분의 주변은 생명의 물질에 싸여 살아나게 됩니다.

▶ On the other hand, when your heart changes to be pure and good, your surroundings are enveloped in the substance of life and come to life.

마음씨 좋은 농부가 밭을 갈면 무엇을 심어도 잘된다고 하는 말은 미신이 아니라 분명한 과학입니다.

▶ It is science, not superstition, to say that any kind of crop will be successful if a good-heart farmer plows one's field.

따라서 여러분이 선한 양심인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이긴 자 하나님의 몸인 영생의 빛으로 변합니다.

▶ Therefore, when you have a good conscience, you turn into the blood of God and into the light of eternal life, the body of God.

반대로 여러분이 마귀의 마음인 악한 마음을 먹으면 피가 썩고 그 썩은 피에서 사망의 영인 독소 물질이 나오면서 만물도 함께 죽어 가게 됩니다.

▶ Conversely, if you eat the heart of Satan, the blood decays and poisonous matters come out of the rotten blood, and all things will die together.*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영적 상징과 꿈 <29>

부제: 中에 대하여 4

이제까지 우리는 '내에 대하여' 시리즈를 통해 여러 경전에 등장한 인간과 만물의 중심으로서의 중(中), 나아가 마귀 욕을 뚫고 나온 이기신 하나님이자 네 생물의 왕'으로서의 중(中)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 이어 노자의 中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道德經) 제 5장

원문
多言數窮 다언사궁
不如守中 불여수중

말(言)이 많을수록 더 궁해지니
중심(中心)에 머무름만 못하다.

풀이
多言數窮(다언사궁) 말(言)이 많으면 점점 궁핍해진다. 노자 정도의 인물이 '말을 삼가라'는 평범한 인간적 레벨의 얘기를 했을 리는 없습나다.

말(言)도 궁핍(窮乏)도 보다 깊은 영적 인 의미를 내포합니다.

'말'은 한자로 언어(言語)입니다. 여기서 언(言)과 어(語)는 다릅니다. 어(語)에는 오(語)자가 붙어있습니다. 사각(詞)은 완성을 뜻하며 오(五)는 완성자의 숫자이니 오(語)는 '하나님 나'입니다. 따라서 言+語 = 語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語)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言)은 하나님(語)이 빠진 말, 즉 인간의 말, 마귀의 말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과 마귀의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 마귀의 입김이 세니 어언(語言)이 아니라 언어(言語), 이렇게 언(言)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어(言語) 외에도 귀신(鬼神), 음성(音聲), 심성(心性) 등 많은 단어 안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빛과 그림자처럼 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애초에 만물이 마귀 욕에 갇힌 하나님의 이중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多言數窮(다언사궁)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언(言)은 인간의 말이며 이는 인간의 이성과 합리, 인간이 만든 학문과 종교 체계 전반을 의미합니다. 결국 언(言)은 나라는 마귀 신의 조종 하에 들어가는 인간적 생

각과 판단, 알음알이 전체를 말합니다. 따라서 '多言數窮(다언사궁)'은 내가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나라는 마귀'의 두터운 층에 갇히게 되니 영적인 고갈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생각은 하면 할수록 그 영(靈)이 살피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간자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러 강조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은 하면 할수록 내 중심의 하나님이 살피고 성장합니다. 다어(多語) 할수록 풍요로워지니 말하자면 다어사풍(多語數豐)입니다.

이렇듯 다언(多言)의 자리는 나라는 의식, 껍데기 나의 자리이며 어(語)는 존재의 중심(中心) 자리, 속 하나님입니다.

해서 노자는 바로 뒤이어 '수중(守中)하라' 즉, '마음의 중심(中心) 자리를 지키고 머무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석가모니가 말한 이변처중(離邊處中) '내 마음의 변두리, 껍데기에서 떠나 중심 자리에 거하라.'는 말과도 온전히 일치합니다.

일정 층 이상의 선각(先覺)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 입은 다르나 똑같은 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인간(人間)이 하는 말들이 아니라 그 입을 빌어

내 안의 공적영지(空寂靈知), 하나님 자신이 내가 되어 직접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의식의 마귀의 층에 머물 것이냐, 중심(中心)의 하나님 자리에 거할 것이냐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善擇)입니다. 이는 이간자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율법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나라는 마귀의 생각과 감정에 반대하는 '반대생활', 그리고 오셔서 나 대신 나를 해달라는 '말김'의 공부 등 자유율법은 인두 껍을 벗고 중심의 하나님으로 거듭나는 지름길 중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도덕경(道德經) 제 20장

원문
① 人之所畏 不可不畏
인지소와 불가불의

② 荒兮 황혜

③ 其未央哉 기미양재

④ 我獨異於人 이독이여인

而貴食母 이귀식모

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나 또한 두려워하고 있으니
② 나는 거칠고 황량합니다.
③ 아직 그 중심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④ 하나 나는 홀로 못사람들과 다르니, 오로지 먹여주시는 어머니를 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풀이
지면 상 일부만 옮겼으나 20장 전체를 통해 노자는 중심의 나, 하나님 나로 거듭나기 위해 애쓰는 자의 혼란과 아픔을 탄식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①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은 뒤집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를 좋아한다.'이기도 합니다. 아직 인간적 감정과 아상(我相)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자신의 한계를 토로(吐露)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② '荒의 자전적 뜻은 '황량하다' '말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뒤의 양(央)은 중앙(中央)이니 '荒兮'는 "아직 중심에서 멀어 황량하다"는 중의(中意)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③ '央의 자전적 뜻에는 '중앙' 그리고 '밝고 넓다'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其未央哉"는 "나는 아직 중심에 이르지 못하여 넓고 밝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노자는 중(中)과 같은 의미인 양(央)이 존재와 생명의 중핵(中核)이며 그 중심에서 멀어지면 거칠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를 타개할 돌파구로 제시되어지는 것이 사투 놀랍습니다. 그가 제시한 황로는 의외로 而貴食母(이귀식모), '엄마'입니다.

④ 而貴食母(이귀식모) 라. 노자는 아상(我相)에 천착해있는 못사람과 자신이 다른 것은, 오로지 자신을 키워주고 먹여주시는 어머니를 귀히 여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의 구절에서는 분명 중심, 중앙에 닿지 못해 황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심에서 멀어졌으니, 그대로 중심으로 향하라.'고 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귀 종이고, 유식학으로는 7식 말나식(末那識)의 지배를 받고 있는 6식의 존재입니다.

마귀 내가 자력으로 내면의 중심, 속 하나님 자리에 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 성립조차 되지 않는

애기입니다. 나라는 의식 자체가 마귀 신, 마귀 종인데, 그 내가 내 안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되찾는다?

이는 어둠이 빛을, 마귀가 하나님을 쫓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역지 중의 역지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중심 자리에 집중하면서, 이전에는 나와 마찬가지로 마귀 욕에 갇힌 신세였으나 그 욕을 뚫고 나온 이기신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 붙잡고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노자는 이 타이밍에 절묘하게도 而貴食母(이귀식모), '먹여주는 귀한 어머니'를 꺼내줍니다.

이 어머니는 도(道)의 어머니, 영적 어머니입니다. 이 어머니는 누구를 먹일까요. 내 중심, 마귀 욕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먹입니다. 그 뜻을 먹지 않고는 나는 결코 얘기 보자공과 같은 마귀 욕을 탈출할 수 없습니다.

중(中)에서 시작해서 어머니로 회귀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중(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귀 욕에 갇힌 죄수의 처지였다가 그 욕을 뚫고 나온 이기신 하나님, 영적 어머니니까요. 그는 남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마귀 욕을 뚫고 탈출한 하나님, 나 자신입니다. 그는 나 자신이면서 동시에 마귀 욕에 갇혀있는 나에게 영적인 젖을 먹여주는 어머니입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은 영적 어머니를 만나는 길입니다. 그 지점에서 밖이 안이 되고 안이 밖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그가 내가 되고 내가 그가 됩니다.

이것이 노자(老子)가 중심, 중앙에 대해 얘기하다가 갑자기 외부의 존재처럼 보이는 '먹여주는 어머니'를 말한 이유입니다. 이 식모(食母), 영적 어머니는 외부에 있으나 내 안에 있고 남인 듯 하나 나 자신보다 더 나 자신인 존재입니다. 이 이치를 모르면 노자가 말하는 '먹여주는 어머니'를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노자는 이 어머니가 '귀하다'고 합니다. 나 대신(代身), 나라는 의식의 마귀 층을 뚫고 내 중심으로 내려가 영적 젖을 먹여 줄 어머니에게 귀할 수밖에요. 그 모습은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해 지옥 한복판에 끼어 제 몸을 던지는 보살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지금까지 4회에 걸친 '내에 대하여'를 통해 우리가 함께 한 여정은 어쩌면 어머니와 아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들어있는 영적 아기와 그 아기에겐 젖을 물려 깨우고 성장시켜 끝내 그 아기를 마귀 욕에서 건져내려는 영적 어머니, 귀한 우리 어머니의 이름답고도 지난(至難)한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